

# “탄력근무제, 6개월 → 1년 확대 시 일자리 9만개 보호”

## 탄력근무제 도입 경제적 효과 토론회

임금소득 1조3000억 감소 방지 효과 주 52시간 근무제 충격 최소화 가능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긴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와 1조3000억원 임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GDP(국내총생산)도 2조6000억원 적게 줄어 들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노사합의 기간인 6개월보다는 1년으로 책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



(왼쪽부터)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소 연구원,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배한님 기자

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무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단위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늘리고 줄여서 평균적으로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의 1978년 모형을 통해 탄력근무제의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이전 대비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고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수도 7만7000개가 사라지고, GDP는 0.7% 떨어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조7000억원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실시하면 탄력근무제 미적용 대비 일자리를 19만6000개, 임금소

득을 2조7000억원 보호할 수 있고,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을 미적용 대비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을 보호할 수 있다”며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소득의 직업만족도 영향을 들며 주 52시간이 비효율적인 제도라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자의 월 임금소득이 1% 증가할 때 직업만족도가 0.023%

증가했고, 주 68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0.013% 증가했다”며 “임금소득의 직업만족도에 따른 상승률이 0%가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그 시기를 계산했더니 주 97.5시간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근무시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18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토론자들도 모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가 도입됐을 때 (일자리나 임금소득) 감소폭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며 탄력근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에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의 성수기 평균 지속기간은 5~6개월이다”라며 “6개월 집중해서 일하고 6개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 “금융시스템, 블록체인이 대체”

##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 좌담회

블록체인, 금융분야에 활용도 높아 활성화 땀 다양한 일자리 창출될 것

“우리는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대체했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면 그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금융분야다.”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3일 블록체인과 미래 경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인터넷 도입시만 돌이켜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가 많았지만 프로그램머 등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블록체인 활성화로 일자리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생활은 더욱 윤택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오른쪽 두번째)이 좌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해지고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의 일 자리를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야로 금융을 꼽았다.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옮기려고만 해도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가 소비된다”며 “스마트계약 기능으로 암호화폐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중개기관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블록체인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통적인 금융권 은행시스템을 블록체인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4월 5일 식목일에 비가 오면 10이더리움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블

록체인에 기록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의 신원확인 기술이 금융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끌어다 신원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회사의 직원, 한 국가의 국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블록체인이 할 수 있어 금융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이 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선 ‘편의성’과 사생활 보장을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 불편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수평분할(Sharding), 플라즈마 시스템 등을 도입해 편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은 범죄방지 등

을 위해 신원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지만 사생활 보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부분은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해독이 필요한 암호화된 형태의 신원보증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날 블록체인 사업도 신생사업과 같은 눈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반 신생사업도 80%가 실패하고 성장하는 경우를 반복한다”면서 “블록체인 사업이 80% 실패한 경우도 업계가 겪을 수 있는 성장통으로 보고 정착해 가는 과정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이종인 여시재 부원장, 어준선 코인클러그 대표, 박훈 메타디움대표, 최화민 블록체인협회 캠퍼스 학장, 김민 아이콘 재단 이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OO페이’로 하루 1045억 송금... 3배 ‘깡충’

지난해 日 평균 140만6000건 이용 전년 비 금액 194%·건수 102% ↑

지난해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이용규모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8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평균 1045억4600만원으로 전년(355만4700만원)보다 194.1% 늘었다.

이용 건수는 140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102.5% 증가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크게 성장하면서 간편송금 이용금액과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간편송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도 늘었다. 선불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실적은 지난해 일 평균 1635만건, 142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1%, 116.4% 증가했다.

카드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평균 1260억2800만원으로 전년(677억1000만원)보다 86.2% 증가했다. 이용 건수는 392만건으로 전년(209만건)보다 87.5%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유통·제조회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 두고 거래 때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서비스(앱카드는 제외)를 의미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이용규모가 하루평균 826만건, 4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8%, 25.8% 늘었다. PG는 온라인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 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다.

/김희주 기자 hj89@

